

2015년 5월 12일 (화)

특별히 이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는 않았다.

늘 그랬듯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교 수업을 다녀왔다.

하지만 오늘 날씨는 참 변덕스러웠다.

어제부터 비가 온다고 예고했지만 막상 아침에 일어나보니 비는 오지 않고 오히려 햇볕이 비추기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웬걸, 구름이 많아지더니 학교 가는 길에는 이내 빗방울이 떨어졌다.

다행히 수업 하는 중에 내릴 비는 다 내려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계속 많이 불어 집에 오는 길에는 춥기까지 했었던 것 같다.

정말이지 날씨는 종잡을 수 없지만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겪을 때마다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느낌이다. 부디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아무 일 없기를...

그리고 오늘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우리 학교 근처까지 와서 수업이 끝나는 나를 보러 왔다. 늦게까지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나를 하염없이 기다렸을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맛있는 피자까지 사가지고 와서 내가 올 때 까지 손도 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좋아하는구나 느낄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사람을 통해 변할 수는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짧았지만 그 찰나의 순간까지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 너무 좋았고 우리는 왠지 조금 성숙해진 것 같다.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떠올려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그 세세한 하나하나가 특별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 지나가는 오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겠지.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고 쓰는 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내년에 이 일기를 보고 있을 때는 이 일기를 통해 이 깨달음을 또 깨닫지 않기를 바라며,
1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성숙하고 멋있어지기를 바라며,
훈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마친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

-끝-